

경기도 학교급식 현황과 대안

김재철(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고 있는 현시기 경기급식

■ 문을 닫는 급식실, 학생·학부모의 고통에 둔감한 경기급식

코로나 유행 초기 장기간의 휴교와 온라인 수업이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기지역 학교들의 급식실은 굳게 닫혀 있었음.

■ 농업·농민, 식재료 납품 중소업체들에 배려 없는 경기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10여년을 경과하며 학교에 들어오는 많은 종류의 식재료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급식만 취급하는 업체들이 다수.

학교(교육청)는 그간 높은 수준의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 농민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높은 품위와 까다로운 검수조건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막상 급식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는 경기지역의 친환경재배 농민, 급식납품업체 들의 고통은 외면한 체 이들과는 무관한 형태의 학생가정 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

결과 많은 수의 농민들이 수확조차 하지 못한 체 밭을 갈아엎고 생산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하는 철학의 빙곤

기후위기의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과 더불어 시대정신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현장 급식현장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음.

무상급식을 선도했던 경기급식은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뒤쳐진 모

델로 평가받고 있음.

- ▣ 친환경 급식정책 및 예산의 부제
- ▣ 급식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지자체의 의지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심화
- ▣ 영양과 안전을 뛰어넘는 먹거리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식교육 프로그램의 부제
- ▣ 채식, 저탄소 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 관료화된 학교 내부만의 의사소통이 아닌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의지) 부족

□ 대안

-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친환경급식 실현
 - ▣ 5無 급식 실현(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첨가물, GMO)
 - ▣ 기초기자체별 급식지원센터 설립 적극 협력
 - ▣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하에 공동구매, 차액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 학교별 급식소위원을 뛰어넘는 지역별 급식모니터단 운영
- 마을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급식
- 채식, 저탄소, 동물복지 등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급식
- 교육청, 도, 기초지자체의 역할재정립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유치원등에 대한 통합급식 시설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